

2022. 7월 3주 언론보도 스크랩

[소방정책] 세월호 수색헬기 순직 강원소방관 추모식

강원도민일보

2022년 07월 18일
26면 (인물)

“세월호 수색 헬기 추락사고 ‘소방영웅 5인’ 영원히 기억”

도소방본부 전남 광주서 추모식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가 지난 15일 전남 광주 추모공원에서 ‘2014년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5인의 소방영웅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가졌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 2명과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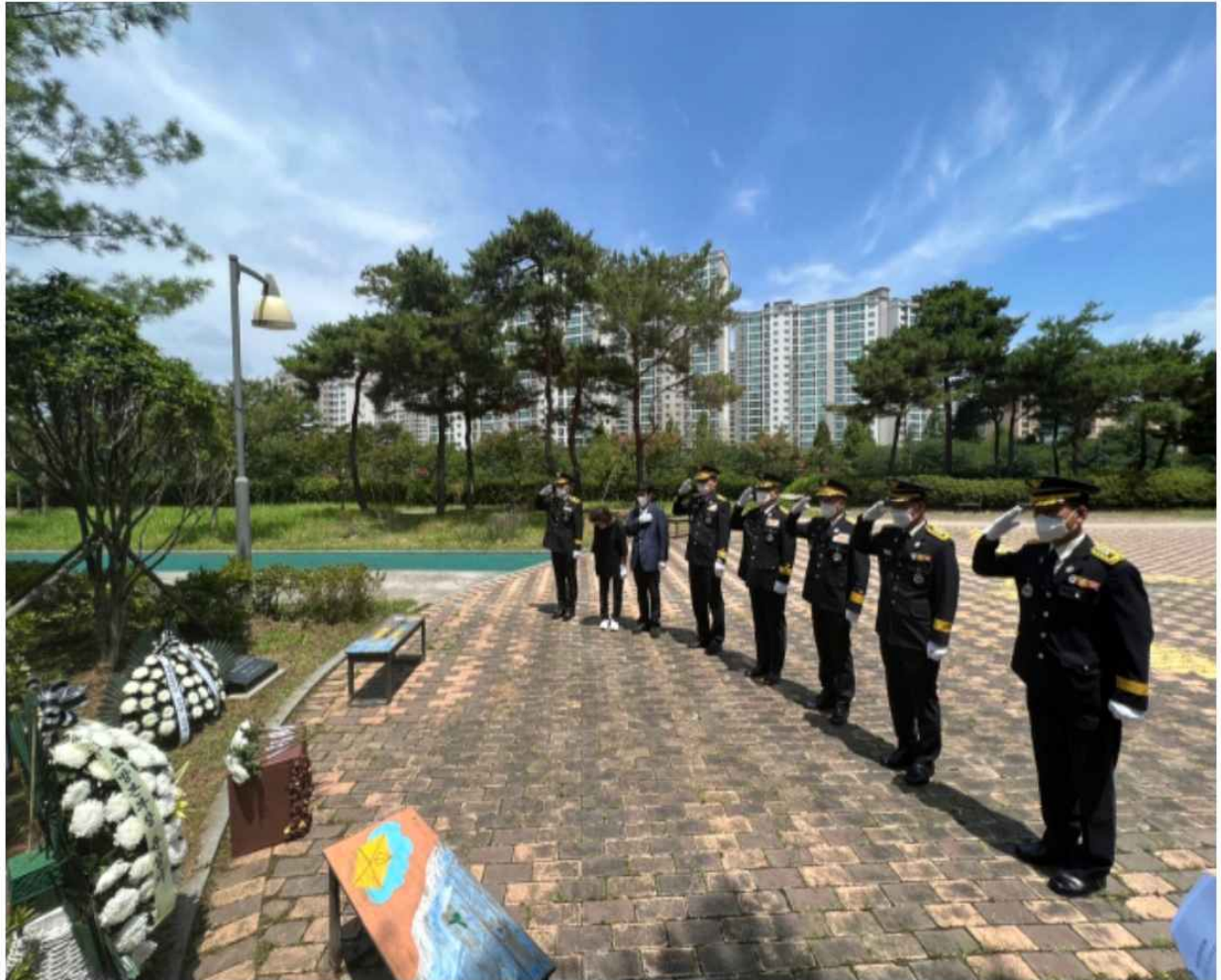
소방헬기 추락사고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현장에 파견돼 2014년 7월 17일 항공수색 임무를 수행한 후 귀항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에 추락해 기장 등 5명이 순직한 사고다.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다 순직한 소방영웅 5인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소방장비의 현대화와 순직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훈

(11.5*6.2)cm

세월호 수색헬기 순직 강원소방관 추모식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찾기 위해 항공수색을 하고 복귀하던 중 헬기가 추락하며 순직한 5명의 강원 소방영웅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열렸다.

도소방본부는 지난 15일 광주추모공원에서 세월호 수색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정성철 소방경, 박인돈 소방위, 안병국 소방장, 신영룡 소방교, 이은교 소방사를 추모하는 추모식을 가졌다. 이날 추모식에는 윤상기 도소방본부장을 비롯한 도소방본부 관계자와 순직 소방관 유가족이 함께해 묘역을 참배하고 넋을 기렸다.

참배를 마친 윤상기 도소방본부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다 순직한 소방영웅 5인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현장에 파견됐던 강원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은 같은 해 7월17일 항공수색 임무를 수행한 후 귀향하다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타고 있던 소방헬기가 추락하며 기장 등 5명이 순직했다.

김준겸기자 lea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2년 07월 18일
04면 (종합)

여름 휴가철 앞두고 벌·뱀 사고 급증 '야외활동 요주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에 따르면 올해들어 6월까지 45건에 불과했던 벌·뱀 관련 사고가 7월들어 2주동안 100여건 가까이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 14일 기준 149건으로 늘었다.

지난 15일 오전 6시 11분쯤 흥천의 양봉장에서 일을 하던 60대 여성이 벌에 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지난 14일 오후 7시 25분쯤 춘천에서 농사일을 하던 50대 여성이

뱀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강원도내에서 발생한 해파리·벌쏘임, 뱀물림 안전사고는 2270건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69.8%(1450건)이 여름철(7~9월)에 발생했다. 가을철 719건(31.6%), 봄철 96건(4%)이 뒤를 이었다. 벌쏘임 사고의 경우 지난 3년간 3명이 사망했다.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린 경우 각자의 몸 상태나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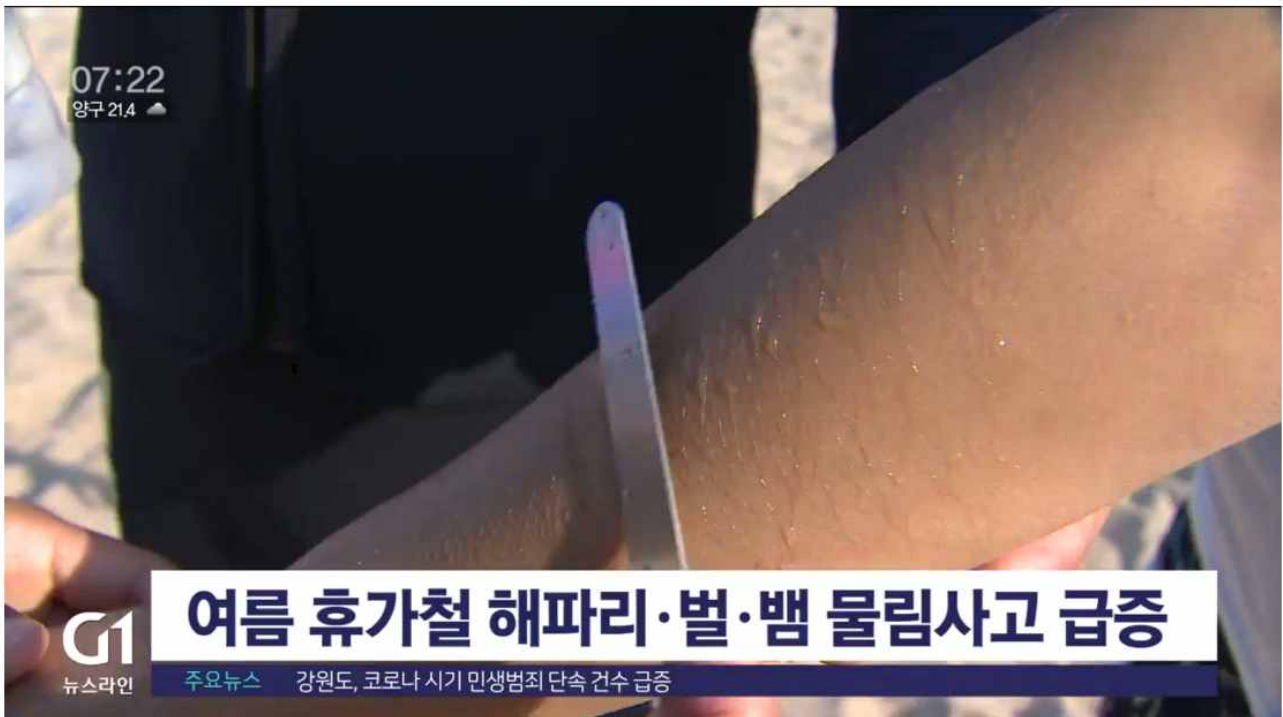
(11.4*7.7)cm

G1방송

2022년 07월 18일
(강원)

여름 휴가철 해파리·벌·뱀 물림사고 급증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파리와 벌 쏘임, 뱀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해파리와 벌 쏘임, 뱀물림 사고는 2천 270건으로, 그중 67.8%가 7월부터 9월 여름철에 발생했습니다.

물림 사고는 올해 상반기까지 45건이었지만, 이번달 들어 149건 발생하는 등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 쏘임·뱀 물림 급증...야외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최근 벌 쏘임·뱀 물림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야외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올해 6월까지 45건이던 벌 쏘임, 뱀 물림 사고가 이달들어 14일 동안 149건이 발생해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릴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옷이나 장화 등으로 신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 벌이 반응하는 자극적인 향은 피하고, 뱀을 잡거나 쫓지 말고 신속히 현장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김태희 bigwish@kbs.co.kr

강원도 내 벌 쏘임·뱀 물림 급증...이달 149건

입력 2022.07.18 (10:13) | 수정 2022.07.18 (10:24)

930뉴스(강릉)

0 1 <

🔊 + 가 -

고화질

표준화질

자동재생 OFF

키보드 컨트롤 안내



[소방정책] 강원소방,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개최

G1방송

2022년 07월 18일
(강원)

강원소방, 태백시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개최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강원도소방본부가 오늘(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를 개최합니다.

청소년 안전캠프에서는 산불 체험을 비롯해 응급 생존수영, 수상 구조, 심폐소생술, 화재현장 탈출, 소화기 실습 등 9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태백시 365세이프타운 캠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2천 632명이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소방정책] 강원소방,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개최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태백 개최

입력 2022.07.18 (10:17) | 수정 2022.07.18 (10:24)

930뉴스(강릉)

0 1 <

가



G1방송

2022년 07월 19일
(강원)

강원소방,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개회식 개최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강원소방이 오늘(19일)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태백 365세이프타운과 강원도 소방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응급 생존수영과 수상 구조 등 9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강원 소방, '제1회 청소년 안전 캠프' 개최식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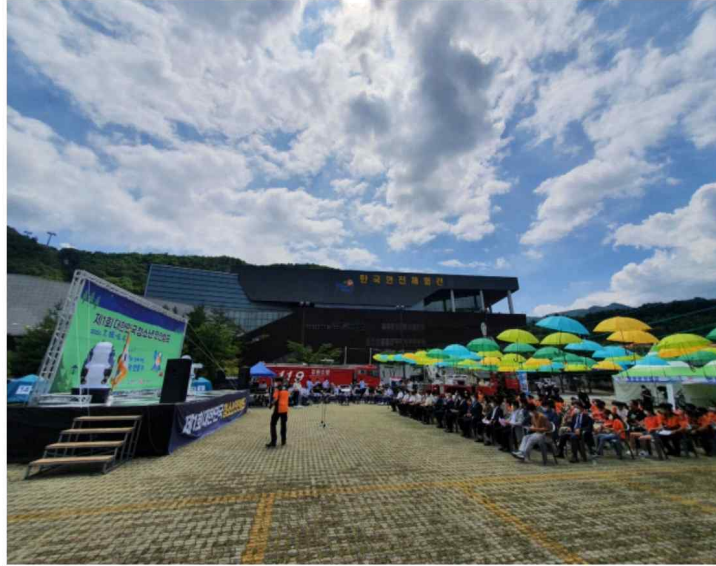
강원도소방본부와 태백시가 함께 하는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가
오늘(19일) 개최식을 열고
다음 달 4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개최식은 전국 청소년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백시 365세이프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 안전 캠프는
2박 3일 일정으로 모두 5차례 진행되고,
생존 수영과 재난 체험, 응급 처치 등
현직 소방관과 함께 하는
필수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송미

[소방정책] 강원소방,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개최

江原日報

2022년 07월 19일
(종합)

태백서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개최



태백시와 강원소방본부(본부장:윤상기)가 청소년 안전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가 19일 한동구 태백부시장,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 이용훈 태백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65세이프타운 캠핑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8월 5일까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태백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가 19일 365세이프타운 캠핑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8월 5일까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회식에는 한동구 태백부시장,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 이용훈 태백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태백시와 강원소방본부(본부장:윤상기)가 청소년 안전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가 19일 한동구 태백부시장,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 이용훈 태백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65세이프타운 캠핑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8월 5일까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태백시와 강원소방본부가 청소년 안전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안전캠프는 수도권 및 전국각지에서 관심을 보이며 회차별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총 2,632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안전캠프는 생존수영, 재난체험, 응급처치 등 필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현직 소방관 인솔 아래 체험할 수 있다. 야외 캠핑은 물론 야간프로그램으로 캠프파이어와 별자리 및 은하수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매일경제

2022년 07월 19일
(정치)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태백 365 세이프타운서 '팡파르'

전국서 2천600여 명 참가...2박 3일간 소방 프로그램 체험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개막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가 강원 태백시 365 세이프타운에서 19일 개막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윤상기 소방본부장과 이상호 태백시장,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개막식을 했다.

365 세이프타운 캠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2천632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참가자들은 300~700명씩 5회차로 나뉘어 2박 3일 일정으로 산불 체험을 비롯해 응급 생존 수영, 수상 구조, 심폐소생술·응급처치, 화재 현장 탈출, 소화기 실습 등 9개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야간 이벤트로 별자리 탐방과 퀴즈대회, 캠프파이어도 진행한다.

윤상기 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청소년 안전캠프를 통해 미래 꿈나무들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태백 365 세이프타운서 '팡파르'



| 전국서 2천600여 명 참가...2박 3일간 소방 프로그램 체험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가 강원 태백시 365 세이프타운에서 19일 개막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윤상기 소방본부장과 이상호 태백시장,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개막식을 했다.

365 세이프타운 캠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2천632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참가자들은 300~700명씩 5회차로 나뉘어 2박 3일 일정으로 산불 체험을 비롯해 응급 생존수영, 수상 구조, 심폐소생술·응급처치, 화재 현장 탈출, 소화기 실습 등 9개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야간 이벤트로 별자리 탐방과 퀴즈대회, 캠프파이어도 진행한다.

윤상기 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청소년 안전캠프를 통해 미래 꿈나무들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정책] 강원소방,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개최

KBS 춘천

2022년 07월 19일
(강원)

태백시,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개최



강원도소방본부와 태백시는 오늘(19일) 태백 365세이프타운 캠핑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개최식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는 청소년 400여 명이 참가해 산불체험과 수상구조, 응급처치, 소화기 실습 등 다양한 재난재해 상황과 소방활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청소년 안전캠프는 다음 달(8월) 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모두 5차례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태희 bigwish@kbs.co.kr

[소방정책] 강원소방,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로 특별점검

G1방송

2022년 07월 18일
(강원)

강원소방,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로 특별점검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강원소방은 오늘(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대피로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내 다중이용시설 3여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비상구 폐쇄 여부와 피난계단 장애물 적치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춘천MBC

2022년 07월 19일
(강원)

강원 소방, 도내 혈액관련 시설 안전점검

강원 소방이 강원혈액원 등

혈액 관련 국가핵심 기반 시설에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는 22일까지 춘천의 강원혈액원과

원주의 혈액관리본부 혈액수혈연구원

시설물을 대상으로 소방과 전기, 가스 등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혈액 7천 단위가 폐기된

지난 10일 대구경북혈액원 화재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승연

江原日報

2022년 07월 20일
04면 (사회)

도소방본부 혈액시설 안전 점검 화재 진화 장비 가동 상태 파악

강원도소방본부가 도내 혈액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소방본부는 19일부터 22일까지 도내 국가핵심기반시설로 관리하는 강원혈액원과 혈액관리본부 혈액수혈연구원 시설물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0일에 발생한 대구경북혈액원 화재로 유사시설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진됐다. 소방 분야 이외에도 건축·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소방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관계인 특별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용석진 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도내 혈액 관련 시설에 대한 예방 안전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화재 안전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준겸기자

(5.7*13.4)cm

G1방송

2022년 07월 22일
(강원)

강원소방, 혈액관련 시설 긴급 화재안전 점검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강원소방은 오늘(22일)까지 혈액 관련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은 대구경북혈액원 화재로 혈액 7천 팩이 폐기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내에서는 강원혈액원과 혈액관리본부 혈액수혈연구원 2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춘천MBC

2022년 07월 22일
(강원)

강원 소방, 119 수상구조대 현장 점검

강원도소방본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치된

119 수상구조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상구조대는 119 구조 대원과

구조 자격을 갖춘 민간 대원으로 구성돼,

도내 해수욕장과 계곡 등 16곳에 배치됐습니다.

소방은 각 구조대의 인력 상황과

응급 구조 장비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미비한 상황이 발견됐을 시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송미

윤상기 강원소방본부장, 홍천 물놀이 유원지 현장 점검

(홍천=뉴스1) 한귀섭 기자 | 2022-07-22 16:12 송고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이 22일 홍천 모곡리 밤골유원지를 찾아 119 수상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이 22일 홍천 모곡리 밤골유원지를 방문, 119 수상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홍천 밤골유원지는 지역 대표적인 물놀이 유원지로 여름 휴가철이 되면 매년 많은 피서객이 찾고 있다. 이에 따라 물놀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곳 중 하나다.

이날 윤상기 도 소방본부장은 홍천 밤골유원지의 안전표지판 설치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구조 대원들의 안전사고 주의 당부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소방청과 도 소방본부, 도내 14개 소방서는 이달 말까지 여름철 소방활동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윤상기 도 소방본부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원도를 찾는 피서객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도 소방본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소방본부는 8월 말까지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해수욕장, 계곡 등 16곳에 119수상구조대를 운영 중이다.



현장 점검하는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



(춘천=연합뉴스) 22일 오후 강원 홍천 모곡리 밤골유원지에서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이 119 수상구조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강원소방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8월 말까지 해수욕장, 계곡 등 16개소에 119 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2022.7.22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 판매 및 DB 금지]

수상구조대 운영 현황 점검하는 강원 소방본부장



(춘천=연합뉴스) 22일 오후 강원 홍천 모곡리 밤골유원지에서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이 119 수상구조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강원소방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8월 말 까지 해수욕장, 계곡 등 16개소에 119 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2022.7.22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